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산업보건센터 · 인천직업병안심센터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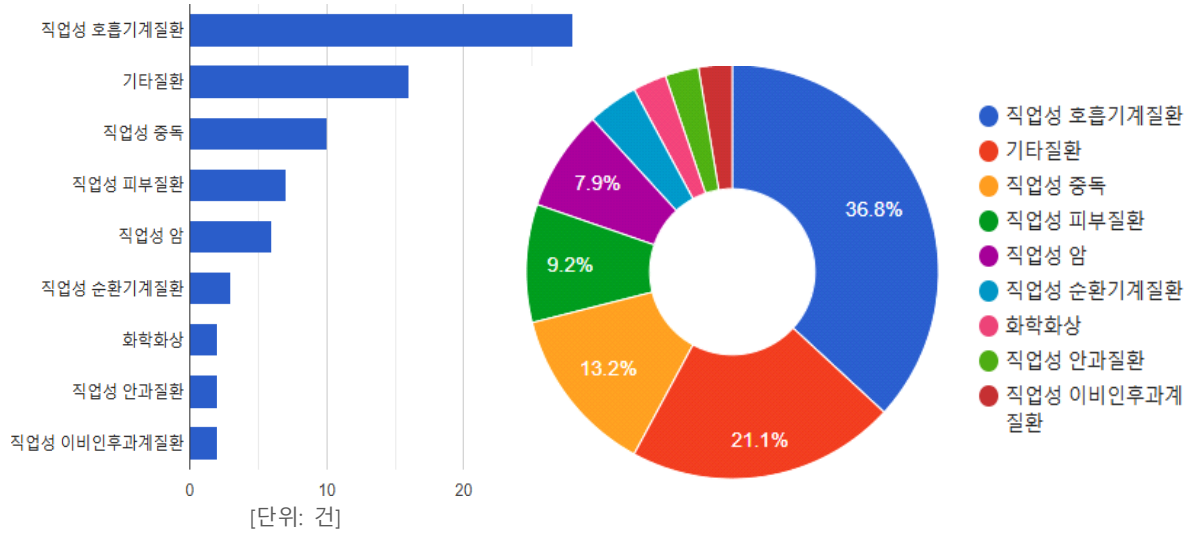
2025년 3월 7일, 「고위험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코호트 구축사업 추진 계획」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위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직업성 질병 발생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개입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뎀 관련 사례 보고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하며, 유해인자 노출 정도와 직업성 질병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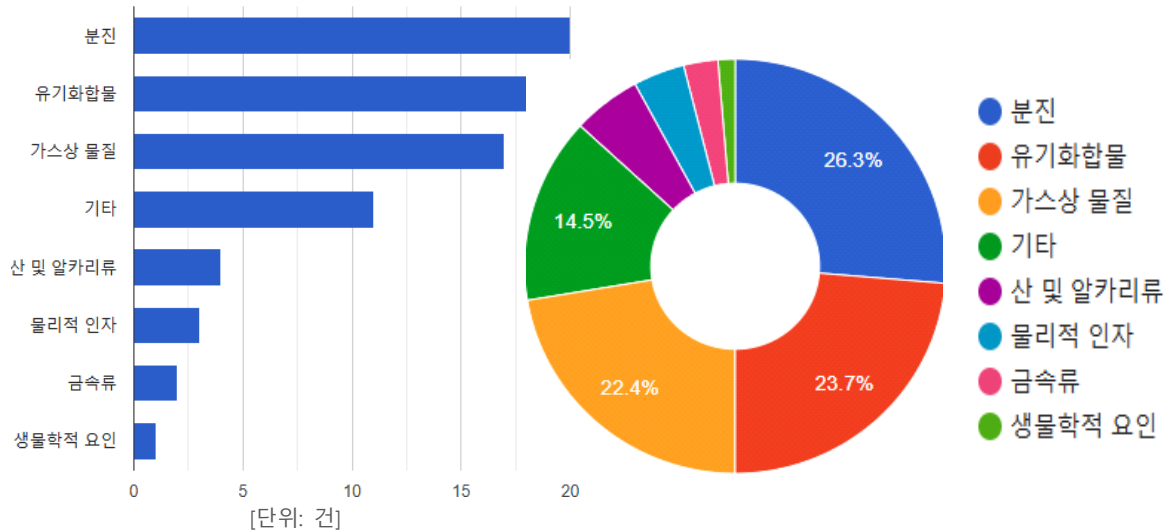
본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일정이 수립되었으며, 대상 사업장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추가 논의 및 실무 협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02월 (2025.02.01.~2025.02.28.)

<질환별>



<유해요인별>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76건의 직업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28건, 기타질환 16건, 직업성 중독 10건, 직업성 피부질환 7건, 직업성 암 6건, 직업성 순환기계질환 3건, 화학화상 2건, 직업성 안과질환 2건, 직업성 이비인후과계질환 2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분진 20건, 유기화합물 18건, 가스상 물질 17건, 기타 11건, 산 및 알칼리류 4건, 물리적 인자 3건, 금속류 2건, 생물학적 요인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종합병원 교대근무 간호사에게서 발생한 유방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45세 여성은 2024년 4월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고, 타목시펜을 복용 중이다. 이 여성은 2002년 9월 종합병원에 입사하여 2021년까지 약 18년 동안 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간호국에서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 2025년 일반건강진단에서 유방암 병력을 확인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18년 동안의 야간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유방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대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필요 시 산재 신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유방암, 남성 전립선암, 결장암, 직장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야간 교대근무가 암을 유발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멜라토닌과의 관련성이 거론되고 있다.

멜라토닌은 밤에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을 돕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변이 밝으면 인체는 빛을 감지하여 시상하부의 시각교차상핵에서 송과체에 멜라토닌 분비 억제 신호를 보내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한다. 그러나 야간에 일하게 되면 빛 노출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낮에 잠을 자더라도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멜라토닌 부족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멜라토닌의 종양 억제 기능이 떨어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또는 제조업 등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은 10년 이상의 잠재기를 가지므로, 교대근무를 이미 그만둔 이후에도 유방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의 간호사도 현재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 의사라면 유방암 병력이 있는 간호사를 상담할 때 과거 교대근무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석재 분진과 진폐증”

해당 근로자는 70대 남성으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4년간 포천 소재 일신석재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석산에서 발파된 석재를 이송하는 작업을 비롯해 그라인더를 이용한 석재 가공 업무도 담당하였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보호장구 착용은 미흡한 상태였다. 특히 겨울철 작업환경에서는 분진이 뿌연게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 2011년 이후 휴직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강원도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보도블록 설치 및 조경 유지 등의 단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3년부터 만성 기침과 가래 증상이 시작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 호흡기내과에서 규폐증 관련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연고지 문제 및 산업재해 상담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카 분진(유리규산)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축적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규폐(silicosis) 및 폐섬유화 등의 심각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규폐증(Silicosis): 실리카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 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폐기능 저하와 호흡곤란을 유발함.

진폐증(Pneumoconiosis): 광물성 분진(석탄, 석영, 석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폐질환으로, 기관지 염증 및 폐섬유화를 초래함.

관련 연구 결과: 실리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도 폐 질환이 발병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남.

해당 사례는 석재 가공 업종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규폐증 및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호구 착용이 미흡하고, 작업 환경이 분진에 취약할 경우 직업성 폐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개인 보호구 착용, 정기 건강검진, 작업장 환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중독

- ◆ 인쇄업체 종사자 톨루엔 노출
- ◆ 치과 종사자의 상세불명의 가스 노출

직업성 호흡기질환

- ◆ 폴리우레탄 작업 종사자의 시안화물에 의한 호흡곤란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